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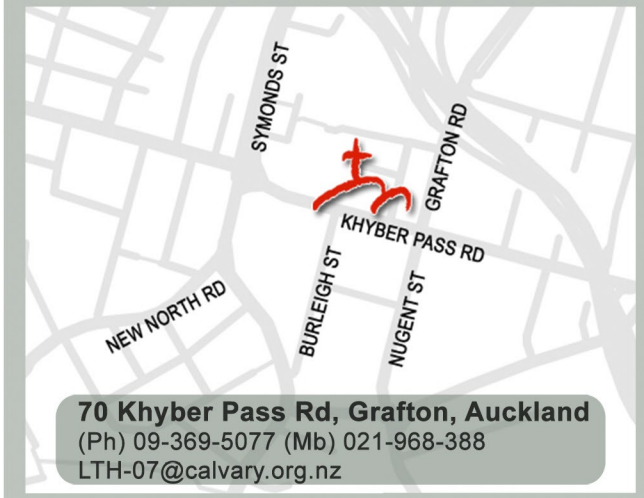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교회 창립 20주년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는 몇 가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말씀 사경회-
   일시: 2019년 7월 19-21일 (금, 토, 주일)
   시간: 저녁 7시 30분 (21일은 오후 1시)
   강사: 이은성 목사 (서울 산들교회 담임, 코스타 강사)
   2) 추억의 사진전이 있습니다 (과거 사진, 현재 사진)
   3) 선행 인물을 추천받아 선행 상을 수여를 할 예정입니다.
   6월 30일 주일까지 추천 바랍니다. (내용, 대상, 일시 등을 기록)
2. 저녁기도회가 오는 금요일 (7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3.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찬송/기도/ 안건 토의)
4. 공동체 예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5. 지난주 토요일 밀알 장애우를 섬긴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6.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 7월 7일(주일)~7월 9일(화)
   주제 : ACTS29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전진하라!)
   장소 : Orere Point top 10 Holiday Park

[6월 교회 사역]

6월 7일(금) 금요 저녁 기도회
6월 9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6월 26일 (수) 선교회 주관 예배
6월 30일 (주일) 성찬 주일

INFO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29:1-2, 11	인도자
▌찬송	8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69장	다같이
대표기도		김철재 집사
성경봉독	**열왕기상 3:4-14**	인도자
찬양대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무십자가 찬양단
설교	**정답의 인생을 사십시오**	이태한 목사
찬송	327장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445장	다같이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06/02
21권 22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14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기도	최희숙 집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25:23-30
설교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 이태한 목사
찬송	453장
주기도	다같이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금주기도	박민주 자매
다음주일	조주찬 형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 7월 7~9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6월 기도 순서]

6월 05일 (수) / 황경임 집사
6월 09일 (주일) / 박병민 장로
6월 12일 (수) / 한누리 집사
6월 16일 (주일) / 박덕철 장로

[6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손조훈, 고미현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김교섭,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김민경

MISSION

이번 주는 베트남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 소식입니다.

목사님과 갈보리 성도님 안녕하세요?

늘 기도해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베트남은 100년 만의 더위로 나라 전체가 익는다는 말을 실감 있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늘 연약한 아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이곳 사역을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안푸투언 교회와 인민위원회, 안푸투언 중학교에 장학금 등 다양한 곳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지는 후원자들의 헌신이라 감사할 뿐입니다.

이곳 베트남에도 요즘 이단들의 침투로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토속 종교와 혼합되어 무질서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갈보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뉴질랜드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더욱 부흥 성장하기를 멀리서 기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셔서 성도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주십시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목회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행복한 교회와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9. 5. 29
베트남에서 이지양 한진숙 드림.

기도제목

1. 사역의 확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겸손히 잘 감당하도록.
2. 여러 지역에 세워진 현지 교회 리더들이 성령충만하도록.

PRAYER

1.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여 날마다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2.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 요동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3. 비자와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로 힘겨운 성도들에게 해결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SHARING

어느 우물가 풍경

올 초 2월 24일부터 시끌벅적 생기 넘치는 우물가가 열렸습니다.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난 오늘까지 달려 나온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과 궁금함을 넉넉히 해갈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물가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함 그 이상입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 매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늘 같은 모습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도착할 때마다 반가움으로 떠들썩하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앉았다 잔잔한 쉼을 얻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지성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또 누구는 부끄러움과 의심 가득한 수가성 여인의 모습으로, 어느 날은 뭔가 궁금한 부자청년의 모습으로…. 정말 있는 그대로의 민낯으로 더러워진 빨랫감을 들고 깨어진 물동이를 이고 지고 우물가로 모여듭니다. 떡과 식혜와 밤과 새노래와 이야깃거리를 들고와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눕니다. 우물가를 떠나서도 우물가에 널어 놓았던 빨래들을 서로 걷어주듯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아침마다 서로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우물일까요? 바로 "풍성한 생명" 주일 반(풍생주) 우물가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들이 이 풍생주 우물가에서 함께 마시고 함께 더러워진 옷을 빨며 삶의 조각들을 나누는 중에 모두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풍생주 우물가에서는 먼저 우물의 기본인 물 긷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말씀을 펼치며 거듭남, 죄에서의 회개, 믿음과 용서, 순종, 하나님의 가족, 성령 충만이라는 각 과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차근차근 되짚어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법, 기도, 사탄을 이기는 법, 옛 본성을 이기는 법,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며 개인의 경건생활의 힘과 능력은 무엇인지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에는 전도와 교회 공동체 안의 삶에 대해 더 배우게 됩니다. 지식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학습되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 동안의 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맑은 우물에 모습이 비취듯 성경 말씀으로 각자를 비춰보는 우물가였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물동이까지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는 두서없이 허겁지겁 우물에 뭔가를 빠뜨리기도 하고 흙탕물을 일으킨 채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확실한 수질 관리인이 있습니다. 마시면 토하고 병들게 하는 쓴 물이 아닌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목사님이 그 우물가에 함께 해주십니다. 모두 다 해갈되어 생명을 얻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목사님의 사랑과 실천과제로 집에 돌아가는 물동이는 항상 차고 넘칩니다.

- 풍성한 생명 주일반 김자경 권사

금주의 암송말씀 5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갈라디아서 6장2절